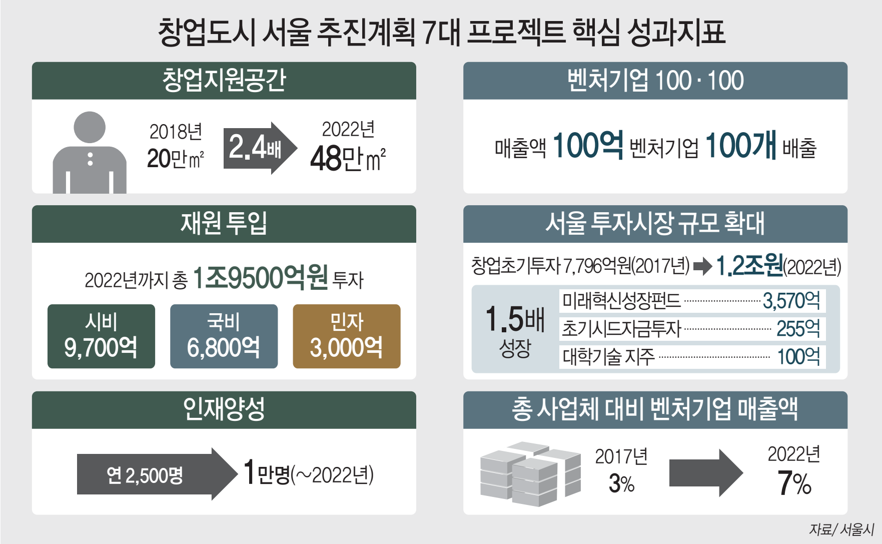
"1.9조 투입·인재 1만명 육성… '글로벌 창업도시 서울'로"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추진계획

입주공간 늘려 신기술 인프라 확충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가동
핀테크·바이오 관련 규제 개선 논의중

박원순 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총 1조9000억원을 투입, 세계적인 창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진력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기업 입주공간을 2200여곳으로 늘려 신기술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100개 이상 배출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스타트업'을 7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총 사업체 매출액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 비중은 기존 3%에서 7%로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기술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홍릉(바이오), 마포(핀테크·블록체인), 개포·양재(AI·빅데이터) 등 6대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 특화인재 6400명을 키운다. 11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과기부와 함께 '혁신학교'를 설립해 문제해결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형 인재 2000명을 배출한다.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법적인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과 핀테크와 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규제 개선을 논의중"이라며 "홍릉을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정되면 규제 완화 효과가 생긴다. 규제 완화 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핵심인재 유치와 육성에도 집중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기술창업 준비비자'를 일주일 내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벤처캐피털이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술창업 비자'가 즉시 발급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양재, 홍릉 등 신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입주기업은 현재 1043개에서 2200여개로 2배 가까이 늘린다. 공간 규모는 기존 20만㎡에서 48만㎡로 2.4배 확대한다. 마포 서울창업허브는 입주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신생 기술 스타트업의 초기육성 전진기지가 된다.

창업 마중물과 제품화 단계에 초기투자를 강화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재원 190억원을 4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600억원 규모의 시드펀드를 만들어 600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창업·재도전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0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온 창업보육 영역을 기업과 벤처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을 가동한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6개월 이내에 시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제품화 18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제품화에 성공했지만, 실증기회와 판로부족으로 애를 먹는 스타트업을 위해 서울시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된다. 아울러 서울에서 창업한 혁신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인 먹거리와 일자리, 서울에 가장 절실한 미래인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에는 '창업'이 있다"며 "서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한강의 기적'을 잇는 '창업의 기적'을 서울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창경궁에서 만끽하는 벚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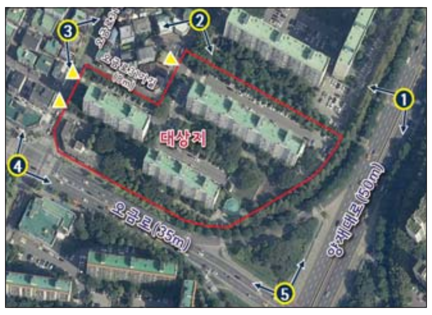
봄기운이 완연한 4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송파 한양3차, 34층 496세대 재건축 본궤도

제5차 도계위서 수립안 수정 가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한양3차아파트는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3개동 252세대로 구성됐다. 금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용적률 299.80%, 4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시 도계위는 북서층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배치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 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곳 폐지와 경관지구 17곳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미관지구 330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17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한다. /김현정 기자

코인 미끼 다단계 적발… AI 수사 첫 사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해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무료 코인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I 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이들 업체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 동안(2018년 5~10월) 전국에서 총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의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시 민사단은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시 민사단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판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등 5개 분야의 민생수사에 적용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내 유통 화장품, 살균·보존제 '안전'

화장품 50종 성분 함유량 검사
안전기준 규정 배합 한도 이하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림, 스킨, 세럼, 로션 등 화장품이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살균 및 보존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도내에서 유통 화장품 50개 제품 총 14종의 살균 및 보존제 성분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이 규정한 배합 한도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품목은 크림 18종, 로션 5종, 세럼 11종, 스킨 16종 등으로 함유량을 조사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은 ▲클로로부탄올 ▲벤질알콜 ▲페녹시에탄올 ▲티몰 ▲디클로로벤질알콜(2,4-3,4-) ▲피클로로엠클레졸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클로로페네신 ▲클로로펜 등이다.

조사 결과, 총 29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페녹시에탄올을 성분 함유량은 최대 0.19% 수준으로 기준치인 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 24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클로페네신 함유량도 최대 0.28% 수준으로 기준치인 0.3%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에 포함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의 성분도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